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이 모유수유 태도, 지식, 모유 내 Na+량 및 모유수유 지속에 미치는 효과

박순옥¹⁾, 지영주²⁾

The effects of breastfeeding support program on the attitude and knowledge of breastfeeding, level of Na⁺ within milk, and continued breastfeeding

Park, Soon-Og¹⁾, Jee, Youngju²⁾

요 약

본 연구는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연구로 정상아를 분만하고 산후조리원 재원 중인 건강한 산모 50명이다. 200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주간의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태도, 지식, Na+량과 모유수유지속을 산후 6일, 4주, 8주로 3회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5.0)로 t-test와 χ^2 -test, repeated measure ANOVA 분석하였고, 결과 집단 간에는 태도와 지식에서, 시기별로는 태도, 지식, Na+량, 모유수유지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과 시기별 상호작용 효과는 모유수유지속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모유수유지속에 효과가 검증된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을 폭 넓게 활용하기를 권한다.

핵심어 : 모유수유, 태도, 지식, 교육, 신생아

Abstract

The reserch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breastfeeding support program. The subjects included 50 healthy mothers. For 4 weeks, experimental group enrolled in the breastfeeding support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5.0). t-test, χ^2 -test and Repeated measure ANOVA were used. The Breastfeeding support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time and the group had an impact on attitudes, continued breastfeeding and had not an impact on knowledge, level of Na⁺. The rate of mothers continued on with breastfeeding is expected to increase if we could apply the support program resolving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support program applied in this study.

Keywords : Breast Feeding, Attitude, Knowledge, Education, Newborn

Received (December 17, 2014), Review Request(December 18, 2014), Review Result(January 05, 2015)

Accepted(January 27, 2015), Published(February 28, 2015)

¹614-735 Inje University hospital, Infection Control Office, Gaegeum 2-dong, Busanjin-gu, Busan, Korea
email : nurpso@nate.com

²(Corresponding Author) 631-701 Kyungnam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Woryeongbuk 16-gil,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email : jeeyoungju@kyungnam.ac.k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모유는 아기에게 영양학적, 면역학적으로 인공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하며, 산모에게 모아 애착 형성을 통한 상호관계 증진, 산욕기 우울증 감소, 자궁수축 촉진, 자궁암이나 유방암, 골다공증 등의 질병발생 감소의 효과를 안겨준다[1].

국내 모유 수유율은 1960년대 95.1%에서 2000년대 10.2%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2], 모유 수유의 이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대적인 계몽 및 홍보활동 전개로 2005년 37.4%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미국 'Healthy people 2010'의 생후 6개월 모유수유 실천율 50%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모유수유 실천 향상을 위한 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신 중 여성이 모유수유를 73.2% 계획하나, 산후 1주일에 모유수유에 가장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많은 모유수유 중단이 발생하므로 이 시기의 효과적 중재는 만족할만한 모유수유 지속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3].

모유수유 지속과 관련된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모유수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식이 높을수록 실천율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1][4], 분만 3-8일째 산모의 평균(16mmol/L)보다 높은 모유 내 Na⁺량이 1개월 후 모유수유 중단이 높게 나타남을 통해 이를 모유수유 지속 예견 지표로 보고 있다[3]. 이상의 문헌들을 통해, 아기에게 최적의 영양 공급원인 모유수유 지속을 위해 산모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인지된 교육내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유수유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중재가 필요하며[5], 중재 시점은 모유수유 중단률이 가장 높은 산후 1개월부터 3개월 사이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모유수유에 관한 연구들은 모유수유 실태와 저해요인 및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모유수유지지 프로그램의 개발로 중재 효과를 본 연구라 할지라도 모유수유 지속 예견 인자인 모유 내 Na⁺량 성분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6][7].

따라서 본 연구는 산모의 모유수유와 관련된 문제해결 중심의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유 내 Na⁺량과 모유수유 태도 및 지식의 변화 유도로 모유수유 지속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모유수유 관련특성, 아기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분석한다.

- 2)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의 실시가 대상자의 모유수유 태도, 지식, 모유 내 Na+량, 모유수유 지속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이 모유수유 태도, 지식, 모유 내 Na+량 및 모유수유 지속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이다.

2.2 연구대상

부산시내 S, P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 중 모유수유 의사를 밝힌 산모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산모를 임의 표출하였다. 산모들에게는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으며, S 산후조리원을 실험군으로, P 산후조리원을 대조군으로 임의 선정하였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표출하였다.

① 만 20세-40세 이하의 결혼한 여성, ② 임신과 분만 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건강문제가 없는 여성, ③ 제태기간 37주에서 42주, 출생 시 체중이 2,500g 이상인 정상아를 분만한 여성, ④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상 분만을 하고 산후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내원한 여성.

두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최소 표본크기는 유의수준 $\alpha=0.05$, effect size=.40, power=.80으로 하였을 때 각 그룹 당 25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5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구도중 산후조리원 퇴원 후 타 지방으로 이사한 2명, 연구 참여를 거절한 5명 탈락으로 실험군 29명, 대조군 21명이 최종 연구에 참여하였다.

2.3. 연구도구

1) 문제해결식 개별교육과 전화상담을 이용한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

(1) 산후 6일-2주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 문제해결식 개별교육

문제해결식 개별교육은 구분용[8]이 Aguilera, Messick [9]의 위기개입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 방법을 근거로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인식된 문제를 정의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본 지지프로그램은 적어도 1일 1회 이상(아침 8시-10시 혹은 오후 4시-6시, 소요시간 5분-30분) 실시하였으며, 수유 시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나 장애가 있는 산모들에게는 더 자주 실시하였다.

(2) 산후 3주 - 4주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 문제해결식 전화상담

문제해결식 전화상담은 설기문[10]이 Aguilera, Messick [9]의 문제해결식 접근방법을 근거로 적용하였으며 문제해결식 개별교육과 같이 4단계로 구성하였다. 산후조리원을 퇴원한 산모와 상담 후 모유수유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방법과 어려운 점을 표현하도록 하고 모유수유를 격려하며, 잘못된 내용은 설명하고 수정하면서, 대처방법을 알려주었다. 문제해결식 전화상담은 산후조리원을 퇴원한 시점부터 산후 4주까지 연구자에 의해 3일에 1회(1회 5분-30분) 시행되었다.

2) 모유수유 지속 관련 요인

모유수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Gulick[11]의 연구를 근거로 변수자, 한정자, 이자형[12]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인지적 7문항, 감정적 9문항, 행동의 경향성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예’ 3점, ‘모르겠다’ 2점, ‘아니오’ 1점을 부여한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모유수유 태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75이었으며[12], 본 연구의 신뢰도는 .70이었다.

모유수유 지식에 관한 도구는 정문숙, 김미예, 고효정, 신영희, 정귀애, 이인혜, 김신정, 송인숙, 이수연[13]이 개발하고 김영혜, 김미정[14]이 수정. 보완한 모유수유 지식에 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예’ 1점, ‘아니오’ 0점을 부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2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55[13], .75[14]였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아침 첫 수유 시, 양쪽 유방에서 모유를 손으로 눌러 2.5~5ml를 채취하여, 신분노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라벨을 붙이고, C 병원 검사실에서 24시간 이내에 Beckman E4A로 분석하였다. Beckman E4A은 0mg/dl에서 60mg/dl의 눈금이 있으며, 0mg/dl과 60mg/dl 사이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최고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양쪽 유방 모유는 각각 분석하여, 평균값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모유수유 관련과 아기 특성, 모유수유 지속률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검정은 t-test와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2) 지지프로그램 적용 실시 후 1(분만 4주 후), 실시 후 2(분만 8주 후) 모유수유 태도, 지식, 모유 내 Na+량, 모유수유 지속에 대한 차이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 3) 시간경과에 따른 지지프로그램의 효과를 모유수유 태도, 지식, 모유 내 Na+량, 모유수유 지속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repeated measure ANOVA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평균 연령이 31.08±2.93세였으며, 자녀수는 평균 1.44±.64명,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경제정도는 200-3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산모의 직업여부는 '있다'가 과반수 이상이였으며, 운동상태는 '안한다'가 높았다. 현재 건강상태는 두군 모두 건강하거나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라고 응답하여 전 영역에서 두 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0)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mean) | Experimental (n=29) | Control (n=21) | χ ² | p |
|--|----------------------|---------------------|----------------|----------------|------|
| | | (mean), n(%) | (mean), n(%) | | |
| Age (years) | (31.08±2.93) | (30.66±2.41) | (31.67±3.51) | .01 | .588 |
| | < 30 | 10(34.5) | 7(33.3) | | |
| | ≥ 30 | 19(65.5) | 14(66.7) | | |
| Number of children (n) | (1.44± .64) | (1.34± .61) | (1.57± .68) | 2.19 | .335 |
| | 1 | 21(72.4) | 11(52.4) | | |
| | 2 | 6(20.7) | 8(38.1) | | |
| Education | < High School | 8(27.6) | 2(9.5) | 4.26 | .119 |
| | ≥ University | 21(72.4) | 19(90.5) | | |
| Degree of economic (Ten thousand won) | < 200 | 6(20.7) | 1(4.8) | 5.56 | .135 |
| | 200-300 | 16(55.2) | 10(47.6) | | |
| | 300-400 | 4(13.8) | 3(14.3) | | |
| | > 400 | 3(10.3) | 7(33.3) | | |
| Job | Have | 18(62.1) | 14(66.7) | .11 | .774 |
| | None | 11(37.9) | 7(33.3) | | |
| Exercise | Have | 11(37.9) | 3(14.3) | 3.38 | .062 |
| | None | 18(62.1) | 18(85.7) | | |
| Health state | Health | 20(69.0) | 13(61.9) | .27 | .763 |
| | Usually | 9(31.0) | 8(38.1) | | |

3.2 모유수유 관련 특성과 아기 특성

대상자의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실험군 69.0%, 대조군 95.2%로 나타났으며 모유수유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실험군 34.5%, 대조군 33.3%였다. 분만 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의 약제 사용여부에 관해서는 '사용하였다'가 실험군 72.4%, 대조군 66.7%이였으며, 임신

중 유방관리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실험군 51.7%, 대조군 33.3%이었으며, 분만 후에 유방관리는 하는 경우가 실험군 86.2%, 대조군 81.0%로 임신 중 유방관리 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모유수유 지속 계획기간은 8.48±5.14개월로 실험군 7.65±4.38개월, 대조군 9.62±5.95개월로 나타났으며, 9개월 이상이 실험군 41.4%, 대조군 52.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적정 모유수유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적정 모유수유의 평균 기간은 10.44±4.48개월로 실험군 10.14±4.13개월, 대조군 10.86±4.99개월로 나타났으며, 9개월 이상이 실험군 62.1%, 대조군 71.4%로 가장 많았다. 의료인의 모유수유 교육과 지지 여부는 교육이나 지지를 받은 경우가 실험군 98.7%, 대조군 61.9%를 나타냈다. 아기의 출생순위는 첫아기의 경우가 실험군 69.0%, 대조군 52.4%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 시 체중은 실험군은 3.0~3.4kg가 58.6%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3.5~4.0kg가 42.9%로 가장 많았다. 출생 시 키는 50cm 이상이 실험군 58.6%, 대조군 81.0%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체중의 경우, 3.5kg 미만이 실험군 72.4%, 대조군 47.7%로 가장 많았다. 모유수유 관련과 아기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모유수유 관련 특성과 아기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that related of Breastfeeding and a Baby (N=50)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mean) | Experimental (n=29) | Control (n=21) | χ ² | p |
|---|--------------------------------------|---|--|----------------|------|
| | | (mean), n(%) | (mean), n(%) | | |
| The mode of delivery | Normal delivery Cesarean delivery | 20(69.0) 9(31.0) | 20(95.2) 1(4.8) | 5.26 | .131 |
| Breastfeeding education | Have None | 10(34.5) 19(65.5) | 7(33.3) 14(66.7) | .01 | 1.00 |
| Drug use at the time of delivery | Have None | 21(72.4) 8(27.6) | 14(66.7) 7(33.3) | .19 | .759 |
| Breast during pregnancy management | Yes No | 15(51.7) 14(48.3) | 7(33.3) 14(66.7) | 1.67 | .254 |
| Managing postpartum breast | Yes No | 25(86.2) 4(13.8) | 17(81.0) 4(19.0) | .25 | .706 |
| Continued breastfeeding plan period | (8.48±5.14) < 6 6-9 > 9 | (7.65±4.38) 8(27.5) 9(31.0) 12(41.4) | (9.62±5.95) 4(19.0) 6(28.6) 11(52.4) | .72 | .699 |
| Optimum duration of breast feeding (months) | (10.44±4.48) < 6 6-9 > 9 | (10.14±4.13) 1(3.4) 10(34.5) 18(62.1) | (10.86±4.99) 2(9.5) 4(19.0) 15(71.4) | 1.95 | .378 |
| Education of health care workers, support | Yes No | 26(98.7) 3(10.3) | 13(61.9) 8(38.1) | 5.47 | .136 |
| Birth order | First Second Third | 20(69.0) 7(24.1) 2(6.9) | 11(52.4) 8(38.1) 2(9.5) | 1.44 | .488 |

| | | | | | |
|------------------------|---------|----------|----------|------|------|
| Weight at birth (kg) | < 3.0 | 5(17.3) | 4(19.0) | 2.38 | .304 |
| | 3.0~3.4 | 17(58.6) | 8(38.1) | | |
| | 3.5~4.0 | 7(24.1) | 9(42.9) | | |
| At birth, the key (cm) | < 50 | 12(41.4) | 4(19.0) | 3.07 | .216 |
| | ≥ 50 | 17(58.6) | 17(81.0) | | |
| Current weight (kg) | < 3.5 | 21(72.4) | 10(47.7) | 7.09 | .690 |
| | 3.5~4.0 | 7(24.2) | 7(33.3) | | |
| | > 4.0 | 1(3.4) | 4(19.0) | | |

3.3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의 효과

모유수유 태도는 실험군에서 실시 전(51.34±5.24), 실시 후 1(53.69±3.92), 실시 후 2(54.03±3.82)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서 실시 전(48.48±6.35), 실시 후 1(48.19±7.05), 실시 후 2(50.76±4.04)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 간 차이 검정에서 실시 전($t=1.75$, $p=.087$)에는 차이가 없었고, 실시 후 1($t=3.52$, $p=.001$)과 실시 후 2($t=2.92$, $p=.005$)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지프로그램 적용 전, 후 시간경과에 따른 모유수유 태도변화를 반복측정 분산분석 한 결과 집단간($p=.003$)과 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1$),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집단간과 시기별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768$).

모유수유 지식은 실험군에서 실시 전(11.76±2.61), 실시 후 1(12.79±2.81), 실시 후 2(13.38±2.61)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서 실시 전(11.38±2.69), 실시 후 1(11.62±3.01), 실시 후 2(13.05±2.29)로 나타났다. 측정 시기별로 두 군 모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서 지식은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 간 차이 검정에서는 실시 전($t=.50$, $p=.621$), 실시 후 1($t=1.42$, $p=.163$), 실시 후 2($t=.47$, $p=.64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지프로그램 적용 전, 후 시간경과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변화를 반복측정 분산분석 한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333$), 시기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1$),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집단간과 시기별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951$). 모유 내 Na+량은 실험군에서 실시 전(15.66±4.57), 실시 후 1(9.78±3.42), 실시 후 2(9.21±3.13)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서 실시 전(18.48±10.71), 실시 후 1(11.36±8.92), 실시 후 2(11.98±8.72)로 나타났다. 측정 시기별로 두 군에서 변화정도는 다르지만 실험군, 대조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 간 차이 검정에서는 실시 전($t=-1.27$, $p=.210$), 실시 후 1($t=-.87$, $p=.387$)과 실시 후 2($t=-1.58$, $p=.121$)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지프로그램 적용 전, 후 시간경과에 따른 모유 내 Na+량 변화를 반복측정 분산분석 한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395$), 시기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1$),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집단간과 시기별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063$). 모유수유 지속은 실험군에서 실시 후 1(1.93±.26), 실시 후 2(1.90±.31)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서 실시 후 1(1.67±.48), 실시 후 2(1.57±.51)로 나타났다. 측정 시기별로 두 군에서 변화정도는 다르지만 실험군, 대조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 간 차이 검정에서는 실시 후 1($t=2.50$, $p=.016$), 실시 후 2($t=2.81$, $p=.007$)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지프로그램 적용 전,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모유수유 지속 변화를 반복측정 분산분석 한 결과 집단간과($p=.007$) 시기별($p<.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집단간과 시기별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p=.007$).

[표 3]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의 효과

[Table 3] Changes in Attitude, Knowledge of Breastfeeding, Na+ Volume and Continued breastfeeding (N=50)

| Groups | Categories | Experimental(n=29) | Control(n=21) | t | p | F | LSD |
|-------------------------|----------------|--------------------|---------------|-------|-------|-------|-------|
| | | M±SD | M±SD | | | | |
| Attitude | 6 days (1) | 51.35± 5.24 | 48.48±6.35 | 1.75 | .087 | | |
| | 4 weeks (2) | 53.69± 3.92 | 48.19±7.05 | 3.52 | .001 | | |
| | 8 weeks (3) | 54.03±3.82 | 50.76±4.04 | 2.92 | .005 | | |
| | Between groups | | | | .003 | 9.92 | 3>2>1 |
| | Between times | | | | .001 | 13.35 | |
| | Groups* Times | | | | .768 | .09 | |
| Knowledge | 6 days (1) | 11.76±2.61 | 11.38±2.69 | .50 | .621 | | |
| | 4 weeks (2) | 12.79±2.81 | 11.62±3.01 | 1.42 | .163 | | |
| | 8 weeks (3) | 13.38±2.61 | 13.05±2.29 | .47 | .643 | | |
| | Between groups | | | | .333 | .95 | 3>2>1 |
| | Between times | | | | <.001 | 19.53 | |
| | Groups* Times | | | | .951 | .00 | |
| Na+ volume | 6 days (1) | 15.66±4.57 | 18.48±10.71 | -1.27 | .210 | | |
| | 4 weeks (2) | 9.78±3.42 | 11.36± 8.92 | -.87 | .387 | | |
| | 8 weeks (3) | 9.21±3.13 | 11.98± 8.72 | -1.58 | .121 | | |
| | Between groups | | | | .395 | .74 | 1>2>3 |
| | Between times | | | | <.001 | 65.18 | |
| | Groups* Times | | | | .063 | 3.61 | |
| Continued breastfeeding | 6 days | 2.00±.00 | 2.00±.00 | | | | |
| | 4 weeks | 1.93±.26 | 1.67±.48 | 2.50 | .016 | | |
| | 8 weeks | 1.90±.31 | 1.57±.51 | 2.81 | .007 | | |
| | Between groups | | | | .007 | 7.83 | 1>2>3 |
| | Between times | | | | <.001 | 21.13 | |
| | Groups* Times | | | | .007 | 7.89 | |

4. 결론

본 연구는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이 모유수유 태도, 지식, 모유 내 Na+량 및 모유수유 지속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은 모유수유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모유수유를 지속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모유수유 지식이 모유수유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육초기 저렴하고 비침습적인 모유 내 Na⁺량 검사를 통해 모유수유 중단 예측군을 판별해서 문제중심 개별교육인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충분한 유즙 배출을 통한 모유 내 Na⁺량 감소로 모유수유 지속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첫 수유 시작 직후인 산육초기 1-8일에 산모의 모유 내 Na⁺량을 측정하여 높은 군과 낮은 군에 따른 6개월 모유수유 지속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 적용 확산을 위해 산과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Referance

- [1] S. O. Lee, A study about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and problem of breastfeeding in early postpartum period and breastfeeding practice,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2003)**, Vol.9, No.2, pp.179-188.
- [2] M. H. Sung and D. H. Kim, Effects of breast-feeding education and continuous phone counseling on the promotion of breast-feeding compliance, The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2003)**, Vol.7, No.2, pp.167-178.
- [3] M. C. Neville, R. Keller, J. Seacat, V. Lutes, M. Neifert, C. Casey, J. Allen and P. Archer, Studies in human lactation: milk volumes in lactating women during the onset of lactation and full lact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1988)**, Vol.48, No.6, pp.1375-1386.
- [4] J. H. Yeo and S. C. Hong, The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rate on breast feeding, The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2003)**, Vol.7, No.2, pp.155-165.
- [5] J. H. Song, S. A. Kim, Y. S. Moon, Y. J. Park, S. N.Paik, S. J. Byun, N. H. Lee, K. J. Cho, H. S. Cho, M. H. Choi and Y. J. Choi, Study on recognition and practice of breastfeeding of mothers of under toddler, The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1993)**, Vol.3, No.2, pp.153-165.
- [6] H. C. Cho, The Effect of Breastfeeding Promotion Program On The Primipara's Breastfeed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2007)**.
- [7] G. J. Jang and S. H. Kim, The Effect of Postpartum Breastfeeding Support on the Breastfeeding Prevalenc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0)**, Vol.16, No.2, pp.117-126.
- [8] B. Y. Gu, Process and steps of the telephone counseling: Problem solving approach,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995)**, Vol.3, No.2, pp.145-162.
- [9] D. C. Aguilera and J. M. Messick, Crisis intervention and methodology, Saint Louis: The C. V. Mosy Company **(1978)**.
- [10] K. M. Seal, A model of telephone counseling,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1996)**, Vol.24, No.1, pp.35-150.
- [11] E. E. Gulick, Informational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feeding,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1982)**, Vol.7, No.6, pp.370-375.
- [12] S. J. Byun, K. J. Han and J. H. Lee, A study on type of feeding and attitude of mother to breast feeding, The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1994)**, Vol.4, No.1, pp.52-67.
- [13] M. S. Jung, M. Y. Kim, H. J. Koh, Y. H. Shin, K. A. Chung, I. H. Lee, S. J. Kim, I. S. Song and S. Y. Lee, Nurse's knowledge and nursing activities for breastfeeding promotion,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1993)**, Vol.3, No.2, pp.187-196.
- [14] Y. H. Kim & M. J. Kim, The effect of the nurses' knowledge to breast-feeding on the nursing activities for breast-feeding,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997)**, Vol.3, No.1, pp.52-61.